

동출 스님 (설법연구원 원장)
"만화 불서 포교는 미래 불교에 희망심기"
 16·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 - <법집요송경>
 인색하고 응축한 마음을 버려라.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믿음이다.
 믿음은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한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3월 10일) · 주간

대표내선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87호 2014년 4월 9일 수요일

에너지 절약 '녹색 연등회'로 실천

최근 조계종에 '녹색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시와 에너지 절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찰과 불교행사의 전력 효율을 높이는 등 에너지 10% 절이기 운동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3월 30일, 4월 1일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조계종, 태고종, 서울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자제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조계종은 소속 사찰들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에너지 사용량 10% 절약을 목표로 실천하고 절전전구(LED) 사용, 에너지 효율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조계종의 실천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용하는 소형 행렬등은 LED전구로 대부분 교체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과 기술이다. 이세용 조계사 총무실장은 "LED전구는 내구성도 있고 반영구적이라 사용이 용이하다"고 LED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현재는 대응전만 LED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박상희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은 "소형 행렬등은 대부분 LED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형 장엄등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중 제품은 일선 사찰에서 사용하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장엄등을 구성하는 발전기의 경우 매연이 심하고 소리로도 시끄럽다. 이를 배터리로 교체하고 LED 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태고종·서울시 협약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조계사 대웅전 인등 전부

연등축제 소형 행렬등은

LED 교체... "절감 효과"

가로연등·대형장엄등 '숙제'

기존 제품들 사용 어려워

초기 투자비용 부담도 문제

에너지 낭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가로연등의 LED화 역시 비용과 기술적 문제로 답보 상태다. 서울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종교 화합 차원에서 사찰 연등 전구와 교회 트리 전구의 공유를 제안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다. 사실상 불교계 일선 사찰에 보급할 수 있는 LED 전구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자와 가로연등의 LED전구 교체를 놓고 수차례 협의했지만, 현재 불교계 상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당장 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제품을 불교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추진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배현진 기자



"에너지 절약 동참하세요" 조계사(주지 도문)는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지구를 위한 따뜻한 포옹'을 주제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주지 도문 스님은 오가는 시민들과 프리허그를 펼쳤다. 이날 프리허그에는 600명이 동참했으며, 조계사는 동참자에게 에너지 절약용 콘센트를 선물했다. 사진제공=조계사

조계종, '세종시 시대' 불사 본격화

오는 11일 LH공사와 정식 계약... 종교용지 3000평 매입

조계종 제34대 집행부가 중점 과제로 '신도시 포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세종시에 조계종이 종교용지 매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오는 4월 11일 LH공사와 종교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이날 계약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이종재 세종시 건설청장이 참석해 계약을 확정지를 예정이다.

조계종이 매입하는 세종시 종교용지의 규모는 9917.3여㎡(3000평)으로 이에 따라 조계종은 사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불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종시를 비롯한 신도시 포교는 현 집행부의 중점 과제다. 실제 자승 스님은 지난 1월 1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로 변모하고 있는 세종 신도시에 사찰을 건립

해 총무원 본소를 설치한다는 방안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세종시 총무원 본소 설치는 현 임기 내 가능한 일"이라며 "현재 3000여 평 규모의 사찰과 청사를 구상하고 있다. 한

신도시 포교 활성화 기대

용지 추가 매입도 검토 중

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전법도량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사찰 건립을 추진하는 교구본사의 목적 사업 적립금 활용과 각종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종교용지 매입 자금은 사찰 토지 처분금 가운데 총무원에 납부하는

중단목적사업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2013년말 현재 중단목적사업기금은 이월금을 포함해 43억여 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매입금액은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여 추가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계종은 종교용지의 추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매입한 종교용지로는 전법도량의 다양한 시설을 건립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세종신도시의 전체 종교용지는 41필지 12만여㎡(3만 6300평)에 이른다. 현재 13필지가 매각된 가운데 종교용지 2필지를 확보하면 개신교계가 8필지, 가톨릭이 2필지, 불교는 1필지다. 가톨릭계는 교향 방문을 앞두고 추가 종교용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체결식은 차주 상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87호 INDEX

5 종합

2·3 신행

6

시방세계

민중본 '北 어린이 돌기' 걷기 대회

조계종단 개혁 20주년 기념 포럼

생명명화 1천일 정진 재가자만?

밤고 향기롭게 20주년 기념식

형거리 원광사 대웅전 상량식

신행

덕양선원 대비주독송 10년 결사 회향

새연재 - 한암 선사사의 편지 16

태고종 제19대 종정 혜초 스님 재추대

4월 1일 열린 원로회의서 만장일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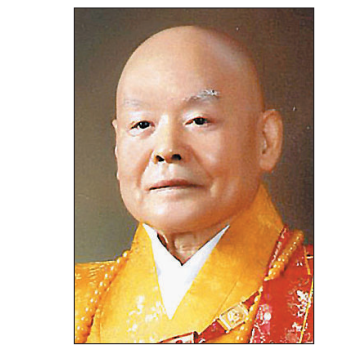
한국불교 태고종 제19대 종정에 현 종정인 혜초 스님(사진)이 재추대됐다.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덕화스님)는 4월 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회의실에서 총 22명 중 19명의 원로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원로회의를 열고 '종정 추대의견'을 논의, 혜초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2004년과 2009년에 이어 재추대된 혜초 스님의 임기는 추대일로 부터 5년이다.

혜초 스님은 1932년 경남 진양에서 태어나 1945년 진주 청곡사에서 청봉(靑峰)화상을 은사로 득도 출가한 이후 1949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하고 1956년 해인대학(현 경남대학) 종교학과를, 1960년 일본 임제대학(현 화원대학) 신학과를 졸업했다.

불교조계종(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 태고종 사회부장·



포교원장·연수원장·부원장과정 제17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에는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에 추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혜초 스님은 특히 한국불교태고종 제8세와 제9세 종정을 역임한 대륜 대종사와 제13세와 제16세 종정을 역임한 덕암 대종사의 법맥을 이어받은 선교(禪敎)를 겸비한 수행자로서 태고종도들의 수행의 표상 및 정신적인 지주로 추앙받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조계종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 訴' 승소

4월 4일 순천지원서 판결... "조계종 재산권 확인"

조계종 선암사(재산관리인 법원)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임형태)는 4월 4일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에서 "조계종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계종 선암사 재산관리인 법원 스님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결과와 그간 상황을 설명했다.

법원 스님에 따르면 차체험관은 순천시가 2004년 3월 선암사 경내에 예산 44억 원을 들여 건립한 것으로 당시 순천시는 태고종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의 동의만 얻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지허 스님은 연임에 실패했고, 순천시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하고 운영권도 접수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순천시를 선암사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하자 조계종과 태고종은 순천시로 부터 재산인수인계를 받았으나 순천시는 야생차체험관을 시 소유로 등기된 것으로 인계를 거부했다.

결국 조계종 선암사는 "조계종 선암사 토지에 허가없이 태고종 측

의 승낙만으로 차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계종과 순천시는 2년 간 6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는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태고종의 입장을 대변해 대응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행정 실수를 인정하고 소송 취하를 위한 협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판결에 대해 재산 관리인 법원 스님은 "이번 판결은 순천시가 선암사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허가 없이 태고종 선암사의 토지 사용 승낙만으로 차체험관을 건립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바로잡고, 재산권이 조계종에 있음이 확인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국립까지 들어간 건물로 사실상 철거는 힘들 것으로 본다. 합의를 통해 기존 건물을 조계종 선암사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선암사 문제는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달리 순리적으로 접근해 두 종단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한국불교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정신과 현대의 조계종'
식전과 한암, 한국불교의 시대정신을 밀하다

초청의 말씀
 귀의상보하옵고, 한국불교학회는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제24교구본사 선운사와 공동으로 "식전과 한암, 한국불교의 시대정신을 밀하다"라는 주제로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의 불교를 지키고, 오늘날의 청정승가인 조계종을 확인하는 정초를 여신 두 선지식의 가르침을 재조명해보자 합니다.

한국불교는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꽃인 조계종의 전통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자랑스러운 종풍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부터 동아시아까지의 대승불교에서 독특한 선승 전통을 오롯이 지켜온 것은 한국불교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과거 일제에 의해 한국승단의 청정 가풍이 어지럽혀지고, 한국불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선의 수행자상도 심각하게 오염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석전石顛(1870~1948)스님과 한암漢岩(1876~1951)스님께서는 계율과 교학, 그리고 선수행을 통해서 한국불교의 청정종풍을 바로 세우고자 하신 분들입니다.

석전스님은 1929년 조선불교 선교양종에서 7인의 중정 중 한 분으로 추대되고,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1945년 해방된 이후에는 초대교정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한암스님은 1929년과 1935년, 그리고 1941년과 해방 후인 1948년까지 총 4차례나 중정(교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특히 1941년에는 조계종 초대종정이 되어서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의 초석을 다지셨습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키고, 불타의 정법 해명을 올바르게 세우신 두 분의 가르침을 재조명해 보는 것은, 미래 한국불교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반성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모조록 두 선지식의 수행과 계율정신에 다시 귀를 기울여 헤이된 종풍을 각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새로운 좌표를 모색하고자 하는 이 뜻 깊은 법연에, 학계 제현과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불기 2558(2014)년 4월 1일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회장 김용표
 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법만

일시: 2014년 4월 18일(금) 12시~18시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주제: 석전과 한암, 한국불교의 시대정신을 말하다
 주최: (사)한국불교학회
 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본사 월정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관: (사) 한국불교학회 (문의처/ 02-2260-3835)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진흥원

◆ 12:00-12:30 참가자 등록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개회식 (12:30-13:50)
 * 사회: 성륜(선운사 교무)/ 자현(월정사 교무)/ 김영민(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

삼귀의/반야심경
 개회사/ 김용표(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회장)
 환영사/ 정념(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법 만(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지 사/ 자 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 해(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본사 월정사 회주)
 범 여(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관위원장)
 축 사/ 현 응(대한불교조계종 교육위원장)
 지 원(대한불교조계종 포교위원장)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하옥(동국대학교 총장)
 참가자소개 / 행사진행안내

◆ 제 1부 주제발표: 14:00-15:40
 * 좌장: 권탄준(금강대 교수, 한국불교학회 부회장)
 * 석전과 한암을 통해 본 불교의 시대정신 / 자 현(월정사 교무국장)
 근대한불교에서 한암의 역할과 불교사적 의의 / 조성택(고려대 교수)

◆ 제 2부 주제발표: 16:00-17:40
 * 좌장: 김성철(동국대 교수, 한국불교학회 부회장)
 * 석전과 한암의 문체역사/김광식(동국대 교수)
 일제강점기 불교와 석전의 교학이념(신구덕(연세대 교수)
 영호(석전) 정호(한영)와 중앙불교전문학교
 교명성(동국대 교수)
 한암의 공안과 선문답/윤정화(민족사 대표)
 천태에서 본 한암의 선사상/
 해명(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 휴 식: 15:40-16:00
 ◆ 제 2 부 주제발표: 16:00-17:40
 * 좌장: 김성철(동국대 교수, 한국불교학회 부회장)
 * 석전과 한암의 문체역사/김광식(동국대 교수)
 일제강점기 불교와 석전의 교학이념(신구덕(연세대 교수)
 영호(석전) 정호(한영)와 중앙불교전문학교
 교명성(동국대 교수)
 한암의 공안과 선문답/윤정화(민족사 대표)
 천태에서 본 한암의 선사상/
 해명(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 중담토론: 17:40-18:10
 ◆ 2014년도 한국불교학회 임시총회: 18:20-18:50
 *사회: 최종석(금강대 교수, 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
 성원보고 / 인건토의 / 사후서원

◆ 안 천 (19:00-21:00)